

예방·치료·돌봄 공백 없는 치매 안전망 구축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우수정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선정

전주시는 올해 더불어민주당 참총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지방정부 운영과 주민 주권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역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 시장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 중 1급 포상(최우



수상)을 수상한 것은 우 시장이 유일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정책'을 주제로 예방부터 진단·치료·돌봄에 이르기까지 공백 없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제1의 치매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치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득에 관계 없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왔다. 또, 전북 권역 공립요양병원 중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1만2000여건의 조기 검진을 시행했으며, 전주 지역 4개 의료기관과 무료 검진 협약을 체결해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전북 최초의 치매환자 돌봄재활사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간 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등록 치매환자 1만173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200여 명의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했다.

또, 평화2동과 조촌동을 각각 전주 시 3호·4호 치매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하는 등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과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우범기 시장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가 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최고의 치매안심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가 연말연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연말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

전주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대상 홍보 펼쳐

전주시가 연말연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시는 4일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밀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했다.

시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열린 홍보 활동을 통

해 연말까지 모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에 기부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직장인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열린 홍보활동을 펼쳐 모금 속력을 높일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 및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 고향사랑노을 홈페이지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 정원산업 미래 발전 방향 모색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 전주 찾아 우범기 시장과 간담회 가져

전주시는 4일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자 환경미술가인 황지해 작가가 전주를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원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황지해 작가는 영국왕립원예협회(RHS)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가든쇼인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3회의 금메달을 수상한 인물로, 전통적인 한국의 미학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독특하고 혁신적인 정원을 창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 정원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전주를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황 작가는 전주가 지닌 정원산업의 잠재력에 대해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황 작가는 정원도시 전주와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년 5월 열리는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특별 초청작가로 참여키로 결정

했다.

황 작가는 간담회 이후에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전주월드컵광장을 방문해 특별초청작가 정원대상지를 답사하고,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황지해 작가의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정원 디자인은 방문객들에게 전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주시는 정원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황지해 작가

2024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사랑의 집수리 봉사

올해 전주시가 마련한 집수리 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힌 교육생들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집수리 봉사에 나섰다.

전주시는 4일 완산구 남노송동 장애인가구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주관한 시민참여 집수리학교 과정의 수강생과 교육을 담당할 지도강사 등 15명은 이날 그동안 배운 집수리 기술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봉사자들은 장애인가구인 점을 고려해 이동보조기구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외벽페인트칠 △간단 집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시간 교육장에서 배운 집수리에 필요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내 집은 내가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조성사업과 지역사회 나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참여 집수리학교 교육을 신설 운영하고, 총 4회에 걸쳐 12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전문강사로부터 공구 사용부터 목질 타일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집수리 분야의 다양한 노하우를 배웠다.



올해 전주시가 마련한 집수리 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힌 교육생들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집수리 봉사에 나섰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집수리학교 수강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전주시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지난 1일 지역 아동기관 7곳에 초코파이 2000개를 전달했다.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아동기관에 초코파이 후원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강동오)는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 전주시 지역 아동기관 7곳에 초코파이 20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초코파이를 전달 받은 기관은 △은혜를 입은 천사의 집 △전주지역 아동센터 △엔젤지역아동센터 △성명

존중센터 △전주영아원 △삼성휴먼빌 △호성보육원 등 7곳이다.

강동호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인 우리 밀 수제초코파이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사회공헌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